

조선전기 십육나한상을 통해 본 상원사 십육나한상

崔聖銀*

目 次

- I. 머리말
- II. 중국의 나한신앙과 나한상
- III. 고려의 나한신앙과 나한상
- IV. 조선전기 나한상과 상원사 십육나한상
- V. 맺음말

국문요약

세조의 원찰로 중창된 오대산 상원사에는 세조의懿淑公主 내외가 왕실의壽福을 위해 석가, 약사, 아미타의 3불과 문수, 보현, 미륵, 관음, 지장보살의 5보살을 조성하면서 십육나한상을 함께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당시 조성된 십육나한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으나 이 상들은 조선초 왕실 발원 佛事를 담당하던 內需所 소속의 당대 최고 彫刻匠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며 현재까지 전해오는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과 목조제석천상, 선재동자입상과 유사한 양식을 공유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존하는 조선전기 나한상들은 남원 실상사 서진암 석조나한상(1516)이나 영월 창령사지 석조나한상들처럼 조각이 간략하고 단순한 유형과 양주 회암사지 서기료전 출토 나한상편과 남양주 흥국사 소조십육나한상, 예천 용문사 소조십육나한상, 1886년에 예천 운복사에서 오대산 상원사로 옮겨온 소조십육나한상(10구 잔존)처럼 표현이 섬세하고 사실적인 유형의 두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계통은 다시 상원사의 존상들처럼 고려 후기 불교조각의 전통을 고수하는 그룹과 흥국사 소조십육나한상과 용문사 소조십육나한상처럼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1458)에서 보이는 새로운 明代 양식이 반영된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존하는 상원사 존상들의 양식적 특징을 통해서 볼 때, 1466년에 상원사에 봉안되었던 십육나한상은 흥국사와 용문사 십육나한상과 섬세하고 사실적인 조형감의 표현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며 같은 상원사 영산전에 봉안되어 있는 예천 운복사 소조십육나한상이 규모는 작으나 조형적인 면에서 상원사 십육나한상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적합한 예로 생각된다.

주요단어: 상원사, 십육나한상, 의숙공주, 나한신앙, 예천 용문사 십육나한상, 남양주 흥국사 십육나한상

I. 머리말

나한은 대승불교의 여러 보살처럼 미륵불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구제하는 존재로서 뛰어난 영험함과神通력으로 동아시아에서 널리 신앙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여러 사찰에 나한상이 봉안되었고 국가적인 행사로 나한제가 열리는 등, 나한신앙이 크게 성행하였다. 나한신앙의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세조의 원찰로 중창된 오대산 상원사에는 세조의懿淑公主(?~1477) 내외가 왕실의壽福과 자신들의 득남을 위해 석가, 약사, 아미타의 3불과 문수, 보현, 미륵, 관음, 지장보살의 5보살을 조성하면서 함께 십육나한상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1465~1466년).¹⁾ 이 상들은 필시 조선초 왕실 발원 佛事를 담

*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1) 『月精寺聖寶博物館圖錄』 “朝鮮國河城尉鄭顯祖懿淑公主李氏伏爲 主上殿下 王妃殿下 世子邸下萬歲萬歲萬歲 亦願己身速得智惠之 男敬成釋迦如來 藥師如來 阿彌陀佛 文殊菩薩 普賢菩薩 弥勒菩薩 觀音菩薩 地藏菩薩 十六應真 天帝釋王 伏安于 五臺山 文殊寺 伏願 衆聖各運慈悲同加攝受 以遂弟子區區懇願 成化二年二月日誌”, 월정사, 2002, p.46; 『2012 중요동산문화재 목불·철불·건칠불 기록화사업 결과보고서(강원·경기)』, 문화재청, 2012, pp.71; 유근자, 『조선시대 왕실발원 불상의 연구』, 불광출판

당하던 당시 최고의 彫刻匠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상원사 십육나한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본고에서는 나한신앙의 전래와 함께 중국 오대·북송과 고려, 조선전기 나한상의 양식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상원사 십육나한상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해 보고자 한다.

II. 중국의 나한신앙과 나한상

나한은 범어 Arhat의 음역 아라한을 줄인 말로 일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어 세상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만한 성자라는 의미로서 聲聞四果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²⁾ 16국시대에 北涼의 道泰가 번역한 『入大乘論』에는 賓頭盧와 羅睺羅 존자 등, 열여섯 大聲聞이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열반에 들지 않고 이 세상에 머물렀다고 釋尊에게 다짐하는 대목이 보인다.³⁾ 정법을 지키고 말세의 중생들이 큰 과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열반에 들지 않고 있는 ‘십육대아라한’ 각각의 존명과 주처가 구체적으로 설해진 것은 玄奘이 654년에 한역한 『대아라한난제밀다라소설법주기』부터인데, 이처럼 대승적인 성격을 띠는 십육나한의 존재는 唐代부터 중국 불교계에 점차 설해지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나, 현존하는 당시의 기록이나 유물이 전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중국에서 나한 신앙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은 당말·오대에부터라고 생각된다.⁴⁾ 돈황석굴 벽화 가운데에서도 <나한도>는 거의 보이지 않다가 9세기 말 景福 연간(892~893)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돈황석굴 196굴 서벽의 「勞度叉鬪聖圖變」의 하단에 나한으로 보이는 상들이 표현된 것이 전하고 있다.⁵⁾ 조각으로는 소형의 소조상으로 돈황 막고굴 제 54굴에서 가져왔다는 唐末의 나한상 부조가 전한다.⁶⁾

나한도에 대한 언급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북송 黃休復의 『益州名畫錄』(1006)부터이며 여기에 수록된 張玄, 趙德齊, 禪月大師 貫休(832~912) 등 <나한도>로 유명한 화가들의 활동시기는 당말·오대였다.⁷⁾ 당말·오대부터 서서히 유행하기 시작한 나한신앙은 북송대에 들어서서 널리 확산되었고

사, 2022, pp.130-134 참조.

- 2) 應供, 殺賊, 不生, 離惡 등으로 번역되는 소승적 개념의 나한은 불멸 후 800년경 執獅子國(Sinhala, 스리랑카)의 勝軍王都에서 난디미트라(Nandimitra, 難提蜜多羅, 慶友)가 說했다는 『大阿羅漢難提密多羅所說法住記(Nandimitrāvādāna)』에서는 대승적인 성격을 띠는 존재로 소개된다. 여기서는 십육나한이 석가불의 부촉을 받아 미륵불이 도래할 때까지 정법을 지키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살과 같은 존재로서 나타난다. 또한 중생들이 齋를 열거나 寺刹, 像, 寶幢, 經卷, 幡蓋, 燈明, 香花 등의 공양불사를 하게 되면 십육대아라한이 이들에게 큰 과보를 얻게 하고 미륵불이 도래하여 정각을 이룰 때 사람으로 태어나 열반에 들 수 있다고 說하고 있다. 玄奘 譯, 『大阿羅漢難提密多羅所說法住記』, 『大正新修大藏經』 권 제49, pp.12下-14上. 이 글에서는 이후 『法住記』로 약칭함; 나한신앙과 십육나한에 대해서는 이수장, 「나한신앙의 성립과 전개과정」, 『불교문화연구』 6, 2005, pp.103-108; 박성철, 「나한신앙과 그 한국적 전개」, 『불교문화연구』 16, 2016, pp.90-92; 최복희(오인), 「한국 나한신앙의 특성」, 『정도학연구』 26, 2016, pp.13-21 등을 참조.
- 3) 『大正新修大藏經』 권 제32, pp.36-49; 道端良秀, 『羅漢信仰史』, 東京: 大同出版社, 1983, p.76.
- 4) 8세기 중엽 무렵 洛陽 靈華寺에 십육나한상으로 추정되는 高僧十六身の 그림이 봉안되어 있었다고 하나 ‘십육나한’을 표현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歷代名畫記』(847)나 『唐朝名畫錄』 같은 唐代的 문헌이나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 등에 <십육나한도>와 <나한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段成式, 『寺塔記』 卷上 「大同坊靈華寺」條; 大村西崖, 『支那美術史』 彫塑篇, 東京: 佛書刊行會, 1915, p.449; 宮崎法子, 「傳齋然將來十六羅漢像」, 『鈴木敬先生還曆記念中國繪畫史論叢』, 東京: 吉川弘文館, 1981, pp.157~159; M.W. de Visser, *The Arhats in China and Japan*, Berlin: Osterheld & Co., 1923, p.103. 참조.
- 5)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4, 北京: 文物出版社, 1987, 圖 184.
- 6) 『西域美術 ギメ美術館 ペリオ・コレクション』II, 講談社, 1995, 도판 150.
- 7) 清代에 편찬된 「東城雜記」의 「貫休十六羅漢圖始末」에는 五代시기 信州의 懷玉山에서 貫休의 <십육나한도>에 기우제를 올렸고, 가뭄이 들 때마다 西山 雲堂院에 봉안되어 있던 관휴의 <십육나한도>에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고 한다. 또한 기우제를 올릴 때마다 항상 한, 두 명의 나한이 절 가운데를 날아다니는 神異를 보였다고 한다. 厲鶚(1692-1752), 『東城雜記』, 「貫休十六羅漢圖始末」; 小林

가뭇이 들거나 홍수가 나게 되면 나한상이나 나한도에 기도하여 영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나한 기도의 대상으로서 특히 10세기 초에 오월과 蜀(사천) 지방에서 활동했던 선월대사 관휴의 십육나한도가 매우 유행하면서 이 그림의 모사본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⁸⁾ 북송대 나한신앙의 유행은 11세기에 중국을 순례했던 일본승려 成壽(1011~1081)이 희녕 5년(1072) 천태산의 오백나한상에 참배하며 안전한 항해를 빌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⁹⁾

나한신앙의 유행에 따라 예배상으로서 나한도와 나한상의 수요가 커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나한상의 모습에 대한 일정한 도상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주기』에는 십육나한상의 이름과 住處, 眷屬 數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고 나한상들의 외형적 특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현존하는 張勝溫이 그린 『大理國梵像』(1173~1176)의 <십육나한도>와 관휴의 작품으로 전해오는 일본 宮內廳 소장의 <십육나한도>(사진 1), 교토 清涼寺 소장<십육나한도>(사진 2)와 같은 북송대의 십육나한도를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는데, 각각의 나한상에 대한 어떤 일관된 도상이 없었으며 시대에 따라 도상과 양식이 조금씩 변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나한상을 조성한 화가나 조각가들은 특별한 範本 없이 자신들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제작에 임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들은 남북조시대 이래 본존불상 좌우에 협시상으로 시립해 있는 가섭과 아난의 제자상이나 빈두로 존자를 그린<聖僧圖>¹⁰⁾, 당대 이래의 승려초상 혹은 神仙像이나 살아있는 승려의 모습 등에서 모델을 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唐末 9세기 무렵 조각인 돈황 17굴 藏經洞의 洪辯스님 소조초상조각(사진 3)이나 사천성 成都 萬佛寺址에서 출토한 석조 승려상 두부¹²⁾에서 볼 수 있는 사실적인 승려의 초상은 이후의 나한상의 양식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1. 傳 貫休 筆 십육나한도, 북송, 일본 宮內廳



사진 2. 십육나한도, 북송, 京都 清涼寺



사진 3. 洪辯 塑造肖像, 唐 9세기, 莫高窟 第 17窟, 甘肅省 敦煌

太市郎, 『禪月大師貫休の生涯と藝術』, 淡交社, 1974; 道端良秀, 앞의 책, pp.117-131; 신광희, 「고려·조선전기 나한신앙과 나한상의 특성에 대한 일고찰」, 『불교학보』 101, 2023, p.222 참조.
 8) 小林太市郎, 위의 책, p.113, pp.141~142. 이 글에서 小林太市郎은 貫休가 그의 『禪月集』에서 請兩기도에 대해 언급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9) 成壽, 「參天台五臺山記」, 『大日本佛教全書』, 東京: 佛書刊行會, 1915, 115卷, 延久 4年 3月 21日條.
 10) 南朝 宋 泰始(466-471)末에 正勝寺 釋法願과 正喜寺 釋法鏡 등이 聖僧(빈두로 존자)을 그려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 道世, 『法苑珠林』 제 42권 聖僧部; 道端良秀, 위의 책, p.109.
 12) 劉志遠 劉廷璧, 『成都萬佛寺石刻藝術』, 上海: 中國古典藝術出版社, 1956, 圖 46.

십육나한상이 이른 예로는 절강성 杭州 石屋洞석굴에 석조삼존불과 함께 부조되어 있던 516구의 나한상을 꼽을 수 있는데(사진 4), 이 상들은 문화혁명 기간에 모두 파괴되었으나, 『兩浙金石志』에 수록되어 있는 명문들을 통해서 이들이 대략 940~950년대에 만들어진 개인 발원 나한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항주의 煙霞洞석굴에는 吳越 960년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십육나한상(사진 5)이 조각되어 있고,¹³⁾ 항주 飛來峰의 靑林洞석굴 벽에 새겨진 무수한 나한상들 가운데는 북송 함평 3년(1000)에서 6년(1003) 사이의 조성발원문이 있는 상들(사진 6)이 있어 이 일대에서 나한신앙이 크게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연하동석굴 십육나한상은 후대에 일부 보수된 상도 있으나 오대에 성행했던 나한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예이다.¹⁴⁾



사진 4. 石屋洞 석조삼존불과 나한상 부조, 五代 吳越, 浙江省 杭州



사진 5. 煙霞洞石窟 羅漢像, 五代 吳越, 浙江省 杭州



사진 6. 靑林洞石窟 羅漢像郡, 北宋 1000~1003, 浙江省 杭州 飛來峰

한편, 산둥이나 산서, 하북 등, 唐 조각의 전통이 강하게 이어져 왔던 지역에서는 사실적인 양식의 나한상들이 조성되었던 듯하다. 산둥성 長淸 靈巖寺 천불전의 소조나한상들(사진 7)과 산서성 長子縣 崇慶寺 三大士殿의 소조나한상들은 대략 11세기 중엽에서 후반에 이르는 시기의 작품들로 이들 나한상에서 보이는 놀라운 사실성에서 북송대 나한상의 높은 수준을 알 수 있다. 한편, 하북성 邯鄲市 常樂寺址에서 출토된¹⁵⁾ 석조나한상의 두부(사진 8)는 각기 해학적이거나 위엄있는 개성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 상들이 조성된 하북과 산서 지방은 당말의 사실적인 조각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지역으로 이것은 遼의 영토에 속해 있던 산서성 易州 출토의 三彩 나한상들(사진 9)에서도 확인된다. 이들 북송과 遼代 나한상들은 소조상이거나 삼채상이므로 흙이라는 재료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당말의 소조상 전통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사실적인 조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북송대 나한상 조각의 주요 계통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적인 나한상들과는 달리 항주 청림동에는 형태가 단순화되고 추상화된 나한상들로 조각의 세부가 간략한 북송 초의 소형 나한상들이 새겨져 있으며, 기년명의 북송 나한상으로 慶歷 7년(1047)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 광둥성 曲江 南華寺의 목조나한상(사진 10)이나 역시 같은 절인 남화사에서 이듬해인 8년(1048)에 제작된 목조나한상들은 당시 이 지역 나한상의 형상이 얼마나 조형적으로 단순화되었는지 보여준다.¹⁶⁾ 이 2구의 나한상 뿐 아니라 정확한 조성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북송대에

13)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西湖石窟』, 杭州: 浙江省人民出版社, 1986, 도판설명 32, 62, 92 참조.

14) 연하동 나한상에 대해서는 崔聖銀, 『杭州 煙霞洞石窟 十八羅漢像에 대한 研究』, 『美術史學研究』 190·191, 1991, pp.161~192 참조.

15) 모두 15점이 출토되어 원래 십육나한상으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석조나한상 두부는 몸체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로 출토되었으나 이 나한상들의 몸체가 발견되어 북송대 나한상의 일반적인 형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자들은 이 나한상들의 조성 시기를 중·만당기로 편년하고 있으나 북송대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邯鄲市文物保管所·峰峰礦區文物保管所, 『河北邯鄲鼓山常樂寺 遗址清理簡報』, *Cultural Relics* 10, 1982, p.35 및 圖 29, 30, 31 참조.

16) 廣東省博物館編, 『廣東省博物館藏品選』, 文物出版社, 1999, pp.242~243.

조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강소성 吳縣 保聖寺 소조십팔나한상(사진 11) 등도 강남지방에 전해오는 나한상들은 해학적이면서도 宋代 道釋人物畫에 보이는 단순하면서도 인간미가 넘치는 표정을 보이거나 선월대사 관휴의 나한도에서 보이는 異國的이고 괴이한(grotesque) 면모를 보인다.



사진 7. 靈巖寺塑造羅漢像, 中國 北宋 1056 ~ 1070, 山東省 長清



사진 8. 常樂寺址출토 석조나한상 두부, 中國 北宋



사진 9. 三彩羅漢像, 中國 遼代 11세기, 河北省 易州 출토,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앞에서 살펴본 북송대 나한상들은 항주 연하동석굴 석조나한상, 한단시 상락사지 출토 석조나한상, 장청 영암사 천불전 소조나한상과 같이 살아있는 승려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사실적인 나한상 계통과 항주 석옥 동석굴 석조나한상, 오현 保聖寺 소조나한상처럼 단순화되거나 추상화된 모습으로 표현되는 나한상의 여러 계통으로 나뉘어질 수 있겠는데, 각각의 유형들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고려시대 나한상의 도상과 양식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10. 南華寺木造羅漢像, 中國 北宋 1047년, 廣東省 曲江



사진 11. 保聖寺소조나한상, 북송~元代, 江蘇省 蘇州

III. 고려시대의 나한신앙과 나한상

통일신라시대 오대산 北臺 象王山에 석가여래와 5백나한의 화상이 봉안되어 있었다는 『三國遺事』의

기사는 나한상과 관련된 이른 기록으로¹⁸⁾ 아마도 羅末麗初 무렵에는 나한신앙이 우리나라에 알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⁹⁾ 한 예로 唐에서 귀국한 崔致遠은 鳳巖寺 智證大師 道憲(824~882)의 비문(924)에 도헌의 행적을 묘사하면서 인도나 서역의 고승들이 중국에 왔다는 의미로 “羅漢東遊”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²⁰⁾ 唐에서 활동했던 최치원에게는 ‘나한’이라는 이미지가 친숙했을 것이다.²¹⁾

나한상 전래에 대해서는 고려 태조 6년(923) 五代 後梁에 사신으로 갔던 尹質이 〈오백나한화상〉을 가져와서 僧山 神光寺에 모셨다는 것이 가장 이른 기록이다.²²⁾ 나한에 대한 언급은 17년 뒤인 태조 23년(940)에 왕건이 후삼국통일을 기념하여 창건한 논산 開泰寺의 낙성법회를 위해 직접 찬술한 疏에서도 보이고 있어²³⁾ 이 무렵에 고려에서도 나한신앙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고려불교의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前述한 後梁 전래의 신광사 오백나한화상은 몽고항쟁기에 소실될 때까지 고려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광종대에는 고려 승려들이 절강성 항주에 도읍했던 吳越을 빈번하게 왕래하게 되면서 오월에서 크게 유행하던 나한 신앙이 고려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성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⁴⁾ 이 시기의 나한신앙에 대해 알려주는 흥미있는 기록으로는 서산 普願寺 法印國師 坦文의 비문에 실린 聖住寺 오백나한에 대한 언급을 예로 들 수 있는데,²⁵⁾ 화엄종 승려였던 탄문의 오백나한 신앙과, 고려 초에 이미 나한 신앙이 널리 소개되어 안선보국원과 성주사 등의 사찰에 오백나한의 畫像 혹은 彫像이 안치되어 있었던 사실, 봄과 가을에 羅漢齋가 베풀어졌음을 알 수 있다.²⁶⁾ 이후 고려에서는 海州 神光寺와 개경 普濟寺

18) 『三國遺事』 권 제3 「臺山五萬眞身條」.

19) 『三國遺事』 권 제2. 기이「가락국기」에는 수로왕 즉위 2년(서기 43년)에 서울을 정하고자 가공의 남쪽 신담평에 가서 사방의 산악을 둘러보며 ‘이 땅이 蓼葉과 같이 협소하나 산천이 수려하여 가히 십육나한의 住地가 될 만하다.’는 대목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십육나한’의 언급은 『삼국유사』가 고려 후기 13세기말에 편찬된 점을 감안하여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 崔致遠,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文』, 李智冠, 『歷代高僧碑文(新羅篇)』, 伽山文庫, 1993, p.299.

21)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p.237.

22) 『三國遺事』 권제 3, 탑상 제 4, 「前後所將舍利」. “...後唐 同光元年癸未, 本朝太祖即位六年, 入朝使 尹質所將五百羅漢像, 今在北崇山神光寺....,” 『高麗史』 「世家」 권 제 1, 태조 6월 6일.

23) “제자는 머리를 조아려 허공이 다하고 법계를 두루하며 시방삼세에 걸쳐있는 모든 부처님과 여러 보살과 나한의 성스런 무리와 범천왕, 제석, 사천왕과 해, 달, 별과 하늘, 용, 팔부신중 및 악진해독과 명산대천 그리고 천지의 모든 신 등에게 귀의합니다.” 『新聖王親制開泰寺華嚴法會疏』, 『高麗名賢集』 권 5, p.89; 최성은, 위의 책, 2013, p.237 註21.

24) 광종대에 諦觀이 천태전적을 가지고 중국 오월로 들어간 이래 다수의 고려 승려들이 오월에 왕래하였다. 許興植, 「高麗初 佛教界의 動向」, 『문학과 지성』 29, 1977, 가을; 同著, 「天台宗의 形成過程과 所屬寺院」,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86, pp.261~269.

25) “開寶 5년(972, 광종 23) 대사는 특별히 태자가 오래 살고 태자궁이 날로 성하며 임금을 도와 임금의 복을 퍼도록 하기 위해 천불도량에 들어가 분향하고 빌었는데 7일이 지난 날 밤 꿈에 500명의 승려가 와서 말하기를 “대사가 바라는 바를 부처께서 들어줄 것입니다”라고 하므로 畫史를 임금께 청하여 오백나한을 공경히 그려 安禪報國院에 안치하였다. 대사가 말하기를 “옛날에 내가 普願寺에 있을 때 삼본 화엄경을 받들고 지니고서 매일 한밤중에 불전 돌기(經行)를 수년 동안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밤 홀연히 삼보 앞에 한 승려가 있기에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성주원(保寧 聖住寺)에서 중생을 교화하던 500명의 승려가 인연을 따라 감응해서 이곳을 지나다 저로 하여금 문안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서....(중략)..... 이런 일은 내가 十萬雜華(화엄경)를 받들어 지니고 부처님께 귀의하였음을 증험하는 것으로 그리하여 오백나한이 절에 빛을 내며 내려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靈姿에 감동하고 聖德을 값기 위하여 매년 봄과 가을의 좋은 계절에 나한의 妙齋를 베푸는 것은 까닭이 그러해서이다.” 박영제, 『보원사 법인국사 보승탑비』, 한국역사연구회 편,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下)』 譯註編, 도서출판 혜안, 1996, pp.415-416; 최성은, 앞의 책, 2013, p.238.

26) 최성은, 「우리나라의 나한조각」, 『나한』, 국립춘천박물관, 2003; 同著, 『고려시대 불교조각』, 일조각, 2013, pp.237-238.

에서 십육나한재와 오백나한재가 열렸는데,²⁷⁾ 문종 5년(1051)부터 충렬왕 10년(1284)까지 개최된 국가적 인 차원의 나한재가 삼십여 차례에 달한다.²⁸⁾ 문종 5년(1051)에는 보제사에서 기우를 위한 오백나한재를 열었고 예종 16년(1121)에도 기우를 위해 나한재를 개설했다.²⁹⁾ 이규보의 「보제사행오백성전기우문」에는 보제사에서 거행되는 오백나한재를 통해 농사가 풍년을 이루도록 마른 땅에 큰비가 내려 백생들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원이 담겨있다.³⁰⁾

예종 13년(1118) 宋의 휘종 황제가 보내온 소조십육나한상이 개경 安和寺에 봉안되었고,³¹⁾ 개경 廣通 普濟寺의 금당인 羅漢寶殿에는 석가, 문수, 보현의 석가삼존상을 중심으로 오백나한상이 봉안되어 있었다고 하며,³²⁾ 醫王寺 오백나한도,³³⁾ 長安寺 나한당의 십육나한상,³⁴⁾ 福靈寺 소조십육나한상,³⁵⁾ 妙光寺 십육나한상(1179년),³⁶⁾ 金骨山 西窟의 십육나한상,³⁷⁾ 斷俗寺 東廊 석조오백나한상,³⁸⁾ 釋王寺 석조오백나한상,³⁹⁾ 聖燈庵 오백나한도⁴⁰⁾ 등, 나한상에 대한 기록이 다수 전하고 있다.⁴¹⁾

문헌 기록과 회화나 조각으로만 확인되었던 고려의 나한신앙은 1993년 청주 思惱寺址에서 출토된 ‘나한당(殿)’명 향로 4점과 ‘聖僧’명 향로 1점을 통해서 당시의 공양과 의례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한다.⁴²⁾ 고려 후기 戊午年에 주조된 4점의 향로는 같은 시기에 나한당 또는 나한전에 설치할 향로 4개가 함께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만약 나한전에 십육나한상이 봉안되어 있었다면, 나한상 4구 앞에 각각 향로가 하나씩 놓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흥미로운 것은 ‘성승’명 향로인데,⁴³⁾ 성승은 빈두로존자를 일컫는 것으로서⁴⁴⁾ 나

27) 나한재가 주로 열리던 普濟寺의 金堂이 나한을 모신 羅漢寶殿이었던 점에서 고려사회에서의 나한신앙의 성행을 짐작할 수 있다. 『高麗圖經』 권 17, 祠宇 廣通普濟寺; 文明大, 『고려문화』, 일지사, 1991, p. 45 참조.

28) 나한재는 주로 전란이 예상되는 시기에 열려 나한이 석가불을 돕듯이 왕과 국가의 안위를 돕는 호국사상과 관련이 있는 의식이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許興植, 『開京寺院의 機能과 所屬宗派』,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86, pp. 300~301.

29) 『고려사』 세가 권 제7, 문종 1, 5년 4월; 『고려사』 세가 권 제14 예종 3, 16년 6월.

30) 李奎報, 「普濟寺行五百聖殿祈雨文」, 『東國李相國集』 권 41; 신광희, 앞의 논문, 2023, p.223 참조.

31) 『高麗史』 세가 권 제14睿宗 13년 4월.

32) 『高麗圖經』 권 17 祠宇 廣通普濟寺.

33) 李奎報, 「醫王寺始創阿羅漢殿記」, 『東國李相國集』 권 24.

34) 南孝溫, 「遊金剛山記」, 『續東文選』 권 21.

35) 蔡壽, 「遊松都錄」, 『續東文選』 권 21; 俞好仁, 「遊松都錄」, 『續東文選』, 권 21.

36) “(묘광사) 옛 전각에 聖衆의 그림이 있는데 단엄하고 필진하다(古殿有聖衆繪像 端嚴逼真)”고 적고 있다. 林椿, 「妙光寺十六聖衆會圖」, 『西河集』 권 25; 『西河集』 권 1, 記.

37) 李胃, 「金骨山錄」.

38) 『續東文選』 권 21 「續頭流錄」.

39) 『陽村集』 권 33 雜著類.

40) 『동국여지승람』 제 12권 장단도호부 불우조에 실린 權近(1352-1409)의 「五冠山聖燈庵重創記」에는 1398년 성등암을 중수하면서 다시 지은 불우 3칸에 석가삼존, 십육나한제자, 오백성중이 모두 모인 화상을 걸어놓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

41) 郭東錫, 「東文選과 高麗時代의 美術: 佛敎彫刻」, 『講座美術史』 1, 1988, pp.81~84.

42) 思惱寺는 修禪社의 2세 조사 眞覺國師 慧諶(1178~1234)이 1226년 夏安居를 지낸 사찰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출토된 금속공예품은 범종, 향로, 촛대, 금강령, 주자 등, 고려시대 10세기 말에서 14세기 초까지의 의식구와 공양구, 생활용기들이다. 羅漢堂銘 향로 1점에는 “靑州思內寺羅漢殿(建)仲香等 舍香廿八燈廿六共戊午成(匠新造)” 다른 1점에는 “靑州思內寺羅漢堂香戊午年造”, 2점에는 “靑州思內寺羅漢香戊午年造”라고 명문이 조금씩 다르게 새겨져 있다. 여기서 戊午年은 1258년이라는 說이 제기된 바 있다. 崔應天, 「思惱寺 遺物의 性格과 意義」, 『고려공예전』(국립청주박물관, 1999); 鄭濟奎, 「靑州 思惱寺址와 高麗後期 羅漢信仰의 展開」, 『溫知論叢』 24, 2010, pp.212-215.

43) “思內寺聖僧前香宗里乙內一目(成)京僧”, 鄭濟奎, 앞의 논문, p.212 <표-2>참조.

44) 聖僧은 寶頭盧 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빈두로존자를 ‘聖僧’으로 받들어 예배·공양한 것은 남북조시대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宋의 明帝 泰始(466-471) 연간 末에 正勝寺의 釋法願과 正喜寺의 釋法鏡 등이 聖僧을 그림으로 그려 여러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法苑珠林』 제42권 聖僧

한전 십육나한 가운데 제 1존자인 빈두로존자를 별도의 공간에 봉안하여 예배했음을 알 수 있다.

나한상이 십육나한상이나 오백나한상의 형태로 조성된 것은 고려시대부터로 생각되며, 나한상의 제작에는 중국에서 전래된 오대북송의 나한상의 양식과 도상의 영향 못지않게 고려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승려상이나 불제자상 제작의 전통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⁴⁵⁾ 통일신라시대에는 승려의 사후에 초상을 제작하여 영당에 모시는 일이 행해졌던 듯한데, 元曉 사후에 아들인 薛聰이 아버지의 뺨가루와 흙을 섞어 초상을 만들었다는 기록⁴⁶⁾이나 興輪寺 금당에 塑造十聖의 상이 봉안되어 있었다는 기록과 함께 지금까지 전해오는 석굴암의 십대제자상과 같이 조각적으로 우수한 중대신라의 예가 전하고 있다. 기년작의 예로서 창녕 仁陽寺 탐금당치성비상(810년) 뒷면에는 이 절을 건립하는데 공헌한 승려의 모습이 碑라는 제한된 공간에 거의 等身大에 가까운 크기로 새겨져 있다. 이 승려상 부조는 다소 손상을 입었으나 둥근 童顏의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가사와 치마(裙)에는 평행계단식 옷주름이 새겨진 실존 승려의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었다(사진 12).⁴⁷⁾ 하지만 이 상보다 당시 경주 흥륜사의 금당 塑造十聖은 훨씬 사실적이고 세련된 작품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초 10세기 전반에 해인사 건칠·목조희랑조사상처럼 승려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기록과 부합하는 사실적이고 수준 높은 초상이 제작될 수 있었던 것은 前시대 조각 전통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사진 13).⁴⁸⁾ 이와 같은 승려상과 제자상 조각의 전통 위에 중국 오대·북송으로부터 유입된 나한상 조각의 영향을 받아 고려 나한상의 양식이 형성·발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십육나한상과 오백나한상의 제작에 큰 영향을 주었을 오대북송의 나한상은 불교미술 도상 면에서 뿐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고려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무신집권기에 활동했던 원진국사 承迥(1171~1221)이 팔공산 염불암에서 머물 때, 가뭄이 크게 들자 나한 앞에 차 공양을 올리며 五代 오월과 촉에서 활동하던 선월대사 관휴가 지은 「선월화상에참문」을 염송하였다니 금방 비가 내렸다는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⁴⁹⁾ 고려에 관휴의 예참문이 전해져 있었다는 것은 북송의 나한신앙과 함께 나한상의 도상이 고려 불교계에 전해져 큰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한다.⁵⁰⁾

현존하는 고려시대 나한상들 가운데 봉안처와 존명이 분명하게 알려진 예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동제빈두

部: 道端良秀, 앞의 책, p. 109; 이수창(마성), 「羅漢信仰의 成立과 展開過程」, 『불교문화연구』 6, 2005, p.111 참조.

45) 感恩寺 舍利器의 금동승려입상을 비롯해서 華嚴寺 四獅子石塔 앞의 石燈을 받치고 앉아 있는 승려좌상, 호림미술관과 호암미술관의 금동승려입상 등이 전하며, 慶州 南山 塔谷 마애사방불의 남면에도 승려상의 모습이 발견된다. 이 상들은 삭발한 머리에 가사·장삼을 걸치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거나 선정의 자세로 앉은 당시의 승려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 관해서는 趙恩廷, 「朝鮮後期 十六羅漢像에 對한 研究」, 『미술사학연구』 182, 1989, pp.10-12 참조.

46) 『三國遺事』 권 3 「東京 興輪寺 金堂十聖」 및 권 4 「元曉不羈」; 최성은, 「삼국유사를 통해 본 분황사(芬皇寺)의 중대신라 불교미술」, 『문화재』 47-4, 2014, pp.138-142 참조.

47) 이 상에 대해서는 文明大, 「仁陽寺 金堂治成碑像考」, 『美術史學研究』 108, 1970, pp.7-12; 同著, 「인양사(仁陽寺) 금당 치성비상(治成碑像)과 비문」, 『한국의 불상조각 3 통일신라 불교조각사 연구(下) 원음과 적조미』, 예경, pp.323-338 참조.

48) 文明大, 「海印寺 木造希朗祖師眞影(肖像彫刻)像의 考察」, 『美術史學研究』 138-139, 1978, pp.20-27; 崔源植, 「新羅下代の 海印寺와 華嚴宗」, 『韓國史研究』 49, 1985, pp.15-17; 최성은, 「희랑조사 좌상」, 『월간 판전』 1, 봉은사, 2014, p.51; 최성은,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문화재대관 보물·불교조각 I』, 문화재청, 2016, pp.174-178; 정은우, 「陝川 海印寺 希朗祖師像의 특징과 제작 의미」, 『美術資料』 98, 2020, pp.54-77.

49) 李智冠, 『歷代高僧碑文』(高麗篇 4), 「清河 寶鏡寺 圓眞國師 碑文」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77, pp. 112-113.

50)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pp.241-242.



사진 12. 仁陽寺 塔
金堂治成碑像, 統一
新羅 810년, 경남 창
녕



사진 13. 해인사 木造希
朗祖師像, 고려 10세기,
경남 합천



사진 14. 동제빈두
로존자상, 고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5. 승가사 석조승
가대사상, 고려 1024년,
서울 구기동

로존자상이 전한다(사진 14).⁵⁷⁾ 이 상은 魚子紋으로 둘러진 장방형의 대좌 앞면에 음각된 명문을 통해서 靈通寺의 승려에 의해 조성된 빈두로존자상임을 알 수 있다.⁵⁸⁾ 명문에는 “첫번째 賓度盧존자”라고 쓰여 있어 독존으로 조성되었다기보다는 십육나한상으로 봉안되었다고 생각된다. 빈두로존자(Piṇḍola-bhāradvāja)는 십육나한 가운데 첫 번째로⁵⁹⁾ 항시 세간에 있으면서 열반에 들지 않고 정법을 호지하라는 석존의 명에 따라 말법시대 사부대중들의 福田이 되어 그들의 공양을 받게 되었다.⁶⁰⁾ 『阿育王經』에는 빈두로존자의 모습을 머리카락이 희고 눈썹이 길어 얼굴까지 내려온다고 설명하고 있다.⁶¹⁾ 국립중앙박물관의 빈두로존자상은 조각이므로 머리의 색깔은 알 수 없으나 눈썹이 유난히 강조되어 길게 내려온 것이 보인다. 이 상은 노인 같은 외모에 머리에 風帽(두건)을 쓰고 목에는 염주를 걸고 있으며 가사의 안쪽에는 장삼을 입고 있는데 옷깃은 어자문으로 장식되어 있다. 가사 위에는 일정한 간격의 띠줄이 새겨져 있고 양손으로는 주장자로 보이는 持物을 잡고 있다. 빈두로존자상이 머리에 쓰고 있는 두건 형태의 품모는 11세기 전반에 제작된 제천 獅子頻迅寺址 석탑(1022년)의 인물상이나 서울 승가사 僧伽大師像(1024년, 사진 15)에서 처음 나타나며, 김천 직지사 성보박물관장 석조나한상, 동국대박물관 석조나한상, 원주 용운사지출토 석조나한상, 성남 판교출토 금동나한상 등, 고려말~조선초 나한상들에서 다수 보이고 있어 당시 북승에서 전해진 품모를 쓴 승가대사 도상이 나한상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⁶²⁾

57) 출토지는 경기도 오산, 博物館 所藏번호는 新 2255이며 명문은 다음과 같다. “第一賓度靈 尊者 靈通寺 依法鄰僧肉造成.” 黃壽永, 『增補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pp.260-261.

58) 영통사는 고려시대의 유명한 華嚴宗 사찰로 顯宗 18년(1027)에 창건되었고, 大覺國師 義天이 文宗 19년(1065)에 이 절에서 출가했으며, 이후에도 국가적인 사찰로 왕들의 행차가 빈번하고 국가적인 규모의 많은 齋가 열렸던 곳이어서 빈두로존자상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하다.

59) 그는 신통력이 뛰어난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그의 신통력에 대한 일화는 여러 경전에 언급되어 있다. 『四分律』 권 51에는 그가 왕사성의 속인들 앞에서 신통으로 공중으로 몸을 날려 높은 깃대 위에 매달려 있는 전단향 나무로 만든 발우(鉢)를 집은 일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크게 꾸중을 들은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사분률장』 下, 海印寺叢林·東國譯經院, 1974, pp.610-612.

60)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빈두로존자에 대한 신앙이 나타났는데, 前秦에서 활동하던 道安(312~385)이 꿈속에서 빈두로존자를 보고 그의 影像을 조성하여 식당에 모셨다고 전하며 梁 武帝가 병이 들었을 때 빈두로존자에게 7일 기도를 올려 영험이 있었다고 한다. 한글대장경 『法苑珠林』 3, 東國譯經院, 1992, 제 42권, 39. 수청편, pp.126-127.

61) 『大正新修大藏經』 권 50, p.140; 趙恩廷, 「松廣寺 十六羅漢像에 對한 研究」, 『文化財』 22, 1989, p.84.

62) 최성은, 앞의 논문, 2003, pp.188-189; 최성은, 「삼각산 僧伽寺 석조승가대사상 小考」, 『보조사상』 49, 2017, pp.167-212.

풍모는 지장보살이나 승가대사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으며 이국적이고 서역적인 이미지와 연관이 있다. 중국의 경우, 당말오대의 불화에 보이는 승려들은 대개 삭발한 머리로 표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북송대에 승가대사 신앙이 유행하면서 머리에 풍모를 쓴 神異僧의 이미지를 가진 승가대사상이 유행하게 되었다.⁶³⁾ 그런데 북송대 십육나한상의 도상을 거의 그대로 옮겼을 것으로 생각되는 張勝溫의 〈大理國梵像〉 「십육나한도」나 남송대에 절강성 明州에서 활동했던 金大受의 「십육나한도」에는 풍모를 쓰고 있는 나한상이 보이지 않으며 제 12존자인 那伽犀尊者가 달마대사처럼 袈裟를 머리에 둘러쓰고 있는 것이 보일 뿐이다.⁶⁴⁾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고려시대 나한상들에서 나타난 풍모의 표현이 宋代 나한상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被帽 나한상의 도상은 고려시대 나한상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⁶⁵⁾

금속제 나한상에 비해서 소조와 도제 나한상은 전하는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 예로서 작은 經床(빙궤, 협식) 위에 두 팔을 올려놓고 앞을 응시하고 있는 강화도 국화리출토 청자나한상(사진 16)⁶⁶⁾과 지긋이 半開한 눈에 깊은 내면의 경지가 표출된 표정의 함평 龍泉寺출토 청자나한상(전남대학교박물관)은 이 시기 나한상들의 뛰어난 조형성을 보여준다(사진 17).⁶⁷⁾ 소조상은 금속제 상보다 경제적이고 제작공정이 수월한 편이어서 십육나한상이나 오백나한상과 같이 여러 구의 상을 조성할 때 소조상으로 제작한 예가 많다. 서울 우이동 成佛寺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소조나한상(사진 18)은 흙으로 빚어 구운 테라코타상인데 움푹 파인 눈과 튀어나온 광대뼈, 우뚝한 코, 지그시 다문 입이 표현된 넓적한 얼굴에 굵게 새겨진 주름에서 위엄과 연륜이 느껴지면서도 입가에는 미소를 띤 자비로운 나한의 표정이 잘 표현되었다.⁶⁸⁾ 이와 유사한 조형감은 예천 남본리 유적에서 2010년 출토된 소조나한상들에서도 발견된다. 이 소조나한상들은 오랜 세월 땅속에 매몰되어 발굴 당시에 이미 몸체와 머리가 분리된 상태였으나 정수리가 높게 솟은 삭발한 머리, 앞으로 돌출한 활모양의 굵은 눈썹, 정면을 응시한 자비로운 눈빛, 크고 우뚝한 콧날, 입가에 미소를 띤 인간적인 얼굴표정 등, 나한상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사진 19).⁷⁰⁾

앞에서 살펴본 고려시대 나한상들은 오대북송기 나한상의 도상과 양식을 바탕으로 고려적인 수용과 변용이 이루어진 나한상 양식을 보여준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송의 휘종이 보낸 소조십육나한상이 개경 安和寺에 봉안되었다는 것은 사실성이 뛰어난 북송의 소조십육나한상이 고려에 전래된 확실하고도 중요한 사건이다. 당연히 안화사 소조십육나한상은 고려 불교계에 미친 파급효과가 컸을 것이며 여기

63) 南宋代의 六祖慧能의 像에도 풍모를 표현한 예가 보이는데, 1198년의 題記가 있는 福岡 聖福寺의 〈六祖慧能像〉과 淳熙 15년(1188)의 贊이 있는 韶關 南華寺의 〈六祖慧能像〉 拓本에 風帽를 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井手誠之輔, 『日本の宋元佛畫』 日本美術 No.418, 東京: 至文堂, 2001, p. 34의 圖 2와 3 참조.

64) 井手誠之輔, 앞의 책, pp.44-45.

65) 靈通寺銘 동제나한상은 무릎폭이 좁아 전체적으로 길쭉한 실루엣이 느껴지는데, 이처럼 조각의 신체가 가늘고 길게 표현된 조형감은 영암사 천불전의 제 11존 소조나한상의 몸 속에서 발견된 희녕 3년(1070)명의 철조나한상에서도 발견되므로 이처럼 가늘고 긴 실루엣의 조형적 특징을 보이는 나한상이 중국에서도 조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성은, 앞의 책, 2013, pp.250-251.

66) 청자 제작기법상 이 나한상의 제작시기는 12세기로 추정되고 있으나 조형적인 면에서 볼 때는 13세기 전반 무렵이 아닐까 생각된다. 고려 청자나한상에 비해 시대가 내려오지만 협식을 받치고 앉은 나한상의 예로 샌프란시스코 동양미술박물관에 소장된 元代 소조나한상이 있다. *Chinese, Korean and Japanese Sculpture, The Avery Brundage Collection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Tokyo, New York and San Francisco: Kodansha International Ltd., 1974, p.280.

67) 최성은, 앞의 책, 2013, pp.251-254.

68) 최성은, 앞의 책, 2013, p.251.

70)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1010년)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출토되었는데, 십육나한 또는 오백나한상의 일부로 추정된다. 추정 크기는 50~70센티미터 가량이다. 나한상들이 발견된 일대는 개심사지의 일부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천 남본리에서는 북송 휘종(1100-1125)에 발행된 大觀通寶(1107-1110)가 출토되어 소조나한상 혹은 오백나한상이 봉안된 나한전의 존립시기가 고려중기 무렵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醴泉 南本里遺蹟 I』, 영남문화재연구원, 2012, pp.72-80.

서 살펴본 고려시대 나한상들에도 그 영향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사진 16. 청자철채퇴화 점문나한상, 고려시대, 강화 국화리출토, 개인 소장



사진 17. 용천사출토 청자나한상, 고려시대, 전남 함평, 전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 18. 소조나한상, 고려시대,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 19-1. 소조나한상, 고려시대, 경북 예천 남본리출토, 국립대구박물관



사진 19-2. 소조나한상, 고려시대, 경북 예천 남본리출토, 국립대구박물관



사진 20. 실상사 서진암 석조나한상, 조선 1516년, 금산사정보박물관

IV. 조선전기 나한상과 상원사 십육나한상

고려시대 나한신앙의 전통은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정종 2년(1400) 왕실에서 內帑金으로 華藏寺에 석가삼존과 오백나한상을 봉안하였고⁷¹⁾ 세종 2년(1420) 환관 崔龍을 개성 연복사로 보내 梅檀 불상과 십육나한상을 한양으로 가져오게 하였으며,⁷²⁾ 세종의 왕비 소헌왕후는 內需司에 명하여 내당금으로 원통암 응진전에 왕후가 꿈에 본 석조십육나한상을 조성하게 하였다.⁷³⁾ 세조의 둘째 딸인 懿淑公主 鄭顯祖 부부가 오대산 상원사에 십육나한상을 조성발원하였고(1465~1466년),⁷⁴⁾ 예종 1년(1469)에는 왕실에서 세

71) 『정종실록』 권 제3, 2년 3월 癸酉.

72) 『세종실록』 권 제9, 2년 8월 23일.

73) 金守溫, 「重創記」, 『拭疣集』 卷2 「한국문집총간」 9-91; 신광희, 앞의 논문, 2023, p.225 각주 16 참조.

74) 金守溫(1410~1481)의 「상원사 중창기(1475년)」(『한국문집총간』 9-91上)에 따르면, 佛殿의 東西에 上室을 배치하고...東上室의 동쪽에 '나한전'을 세웠다고 한다. 여기에 1466년 봉안되었던 십육나한상은 1599년에 중수되었고 나한전은 1646년에 중수되었으나 그 이후 소실되었다. 『拭疣集』 卷2 「五臺山重創記」. “佛殿東西 皆置上室…(중략)…南廊之間 起樓五間 以棲鍾磬道具 仍門其下 通其出入 東上室之東 立羅漢殿 西上室之西 立靑蓮堂 靑蓮之西 又有齋 廚室, 僧堂, 禪堂, 廚庫, 泡湍之處”. 한국고

조를 위해 靑玉으로 석가여래와 십육나한상을 제작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⁷⁵⁾ 이 밖에도 세조의 비 貞熹王后(1418~1483)와 세조의 장남 덕종의 비 仁粹大妃(1437~1504)는 <십육나한도>를 조성하였고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1501~1565) 역시 <십육나한도>와 <오백나한도>를 제작하였다는 기록은 당시 왕실에서 나한신앙이 매우 성행했음을 말해준다.⁷⁶⁾ 또한 조선초의 문신이었던 俞好仁(1445~1494)의 『遊松都錄』에 수록된 개경 福靈寺 소조십육나한상에 대한 묘사는 고려시대 십육나한상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⁷⁷⁾

앞 장에서 살펴본 고려시대 나한상의 도상과 양식을 계승한 조선전기 나한상의 유형은 여러 갈래가 있을 것이나 크게 두가지 계통으로 전개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하나는 조각이 간략하고 단순한 유형으로 주로 석조나한상들이며, 다른 한 계통은 표현이 섬세하고 사실적인 유형의 소조 나한상들이다. 그 가운데 前者를 대표하는 그룹으로는 남원 實相寺 瑞眞庵 석조나한상들(1516년)이나 영월 蒼嶺寺址출토 석조오백나한상들⁷⁸⁾을 꼽을 수 있고, 후자를 대표하는 그룹은 양주 회암사지출토 소조나한상편을 비롯해서 남양주 흥국사 소조십육나한상, 예천 용문사 소조십육나한상, 1886년 예천 운복사에서 오대산 상원사로 옮겨온 운복사 소조십육나한상(10位) 등을 예로 들 수 있다.⁷⁹⁾

남원 실상사 서진암에 전해오는 다섯 구의 석조나한상(금산사성보박물관)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그중 한 구(사진 20)의 대좌 바닥에 음각된 명문을 통해 이 상들이 正德 11년(1516)에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⁸⁰⁾ 이 나한상은 양손으로 경전을 펼쳐 든 모습으로 머리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 원통형인 두건을 쓰고 두꺼운 장삼을 걸쳤으며 방형에 가까운 둥근 얼굴에는 눈썹이 굽게 양각되었고 치아를 드러내어 웃고 있는 모습이다.⁸¹⁾ 또한 영월 창령사지출토 나한상들은 전체적으로 둥글고 부드러우며 양감이 풍부한 조형적 특징을 보이고 양 뺨에 살이 통통한 童顔의 얼굴과 短軀形의 신체비례, 두꺼운 장삼 위에 새겨진 넓은 띠 주름의 표현이 나타난다. 이 나한상들은 오백나한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다양한 표정, 자세, 持物을 가진 나한상 각각의 개성적인 면모가 표현되었고 머리에 두건을 쓴 被帽 나한상을 비롯해서 가사를 머리에 뒤집어쓴 상 등 여러 유형을 보여준다. 이 실상사 서진암과 창령사지 석조나한상에서 보이는 단구형의 신체비례와 단순한 조각적 표현은 돌이라는 재료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⁸²⁾ 이와 유사한 조형적 요소가 서울 圓覺寺址 십층석탑(1467) 부조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⁸³⁾ 이처럼 간략하고 단

전종합DB <https://db.itkc.or.kr>; 유근자, 「오대산 상원사 영산전 존상의 복장 기록 연구」, 『국학연구』 45, 2021, pp.195-196.

75) 『예종실록』 권 7 예종 1년 8월 13일.

76) “仁粹王大妃殿下 悼年齡之太促 恨氣化之難逃 追念莫伸薦導斯切 乃捨公主匱具 命印法華經 … 繪成靈山會圖 藥師會圖 西方會圖 千佛圖 八難觀音圖 十六羅漢圖 冥府十王圖”, 『妙法蓮華經』(1482) 卷7: <三帝釋天圖>(1483)의 書記 중 ‘十六大聖衆’. 신광희, 앞의 논문, 2023, p.226 각주 19 참조.

77) 『月精寺聖寶博物館圖錄』, 월정사, 2002, p. 46.

78) 이 나한상들에 대해서는 조현경, 「창녕사지출토 五百羅漢像에 관한 연구」, 『강원고고학보』 3, 2004, pp. 163-190; 최선주, 「창령사 터 오백나한상의 도상과 미술사적 고찰」, 『창령사 터 오백나한 : 당신의 마음을 닦은 얼굴』, 국립춘천박물관, 2018, pp. 95-111; 강삼혜, 「고려시대 영월 창령사터 오백나한상 연구」, 『동원학술논문집』 21, 2020, pp. 22-52. 참조.

79) 상원사 영산전 소조십육나한상은 혼동을 피해 운복사 십육나한상으로 부르겠다.

80) 명문에는 “正德十一年丙子化主敬熙”라고 새겨져 있다. 黃壽永, 앞의 책, p. 265 참조.

81) 이 상에서 보이는 短軀形의 童顔과 무릎 부분의 옷주름이 수평적인 한 개의 주름으로 처리된 점, 울퉁불퉁하게 생긴 바위 형태의 岩座 위에 앉아 있는 표현 등은 바로 前年인 正德 11년(1515)에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의 석조지장보살좌상과 흡사하여 이 상의 명문에 보이는 節學이라는 匠人과 같은 계통의 彫像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韓國佛教美術大典』 1 佛教彫刻, 韓國色彩文化社, 1994, 圖 191 참조.

82) 만약 그렇다면 불상의 수요가 많았던 고려시대의 어느 시기부터 석조와 소조 조각가들이 분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3) 文明大, 「圓覺寺10層石塔 16佛會圖의 圖像특징-漢城의 朝鮮初期 彫刻-」, 『강좌미술사』19, 2002,

순한 석조나한상의 조형적 계통이 조선전기 나한상 조각의 한 유형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後者の 그룹으로 꼽을 수 있는 나한상의 예 가운데 양주 회암사지 서기료전 출토 소조나한상片들은 회암사가 창건된 여말선초 1372년에서 회암사가 중창되는 16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⁸⁴⁾ 비록 파편에 지나지 않으나 別材를 감입하여 瞳子를 조각한 눈과 눈꼬리가 긴 선명한 눈매에서 이 나한상들의 사실적인 얼굴 모습과 강렬한 표정을 엿볼 수 있다(사진 21).⁸⁵⁾ 이 상들에는 고려 후기 나한도에 나타나는 강렬하면서도 사실성이 뛰어난 섬세한 나한의 묘사가 반영된 듯하며 눈동자에 별재를 끼운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예천 남본리사지출토 소조나한상(사진 19)과 같은 고려시대 나한조각의 제작기법을 잇고 있다.



사진 21-1. 회암사지 서기료전출토 소조나한상편, 조선전기, 회암사지박물관(이분희, 2021에서 전재)



사진 21-2. 회암사지 서기료전출토 소조나한상편, 조선전기, 회암사지박물관(이분희, 2021에서 전재)



사진 22-1. 운복사 소조십육나한상 제 7존자, 조선 1467년경, 상원사 영산전, 강원도 평창



사진 22-2. 운복사 소조십육나한상 제 11존자, 조선 1467년경, 상원사 영산전, 강원도 평창

다음으로 1886년 예천 天柱山 雲覆寺에서 오대산 상원사로 옮겨져 현재 상원사 영산전에 봉안되어 있는 운복사 소조십육나한상 10구⁸⁸⁾는 30~40cm 정도의 중소형 상들로서 두껍게 입혀진 改彩된 안료를 벗긴 뒤에 드러난 얼굴에서 보이는 인간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상호, 처진 어깨의 다소 섬약한 체구의 과장되지 않은 신체 비례, 착의형식과 옷주름 표현에서 절제된 조형성 등에서 조선초기 뒤에서 살펴볼 남양주 흥국사나 예천 용문사 십육나한상들에 비해 古式의 양식을 보인다(사진 22). 상원사 십육나한상 중에서

p.18 도7, p.19 도8 참조.

84) 이분희, 「양주 회암사지 출토 여말선초(麗末鮮初)소조상 연구」, 『淨土學研究』 36, 2021, pp. 358-371 참조.

85) 이규보(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된 『醫王寺始創阿羅漢殿記』에 의하면 의왕사 나한전에 오백나한과 함께 〈감재사자도〉를 그려 모셨다는 기록이 전한다. 또한 조선후기에 影波聖奎(1728-1812)가 편찬한 「五百聖衆請文」은 고려말에 無學大師(1327-1405)가 釋王寺에서 撰한 오백나한상에 행했던 의식문을 규범으로 하여 작성한 의식문인데 여기서 오백나한 각각의 존명에 이어서 제석천, 범천, 사천왕, 금강, 監齋使者, 直符使者를 칭하고 있다.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권 24, 記, 「醫王寺始創阿羅漢殿記」; 신광희, 「거조암 오백성중청문을 통해 본 한국의 오백나한 의례」, 『한국선학』 51(2018), pp. 238-239; 이분희, 위의 논문, pp.362-363 참조.

88) 이분희, 「오대산 상원사 영산전 존상 연구」, 『조선시대 왕실원찰 오대산 상원사 불교조각 학술세미나』, 대한불교조계종 오대산 상원사·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성보박물관, 2022, pp.133-168; 이분희,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의 양식적 특징」, 『오대산 상원사 진여원과 조선시대 불교조각 학술세미나』,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상원사·월정사성보박물관, 2023, pp.153-186 참조.

제 11존자의 복장에서 成化 3년(1467)의 명문이 있는 <隨求陀羅尼>가 조사되었는데,⁸⁹⁾ 나한상들의 조성시기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⁹⁰⁾



사진 23-1. 흥국사 塑造십육나한상 제 15존자, 조선시대, 경기 남양주

사진 23-2. 흥국사 塑造십육나한상 제 16존자, 조선시대, 경기 남양주

사진 24.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조선 1458년, 경북 영주



사진 25-1. 용문사 십육나한상 제 12존자, 조선전기, 경북 예천

사진 25-2. 용문사 십육나한상 제 13존자, 조선전기, 경북 예천

운복사 십육나한상들에 비해 몸이 가늘고 허리가 길어 전체적으로 길쭉하고 두부가 작은 비례감을 보이는 남양주 흥국사 소조십육나한상(사진 23)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된 얼굴이나 장삼과 가사를 입은 착의 표현이 섬세하다.⁹¹⁾ 긴 허리와 가름하고 작은 여성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얼굴은 영주 흑

89) 腹藏에서 발견된 전적이거나 다라니의 연대가 彫像의 제작연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십육나한상의 조형적 특징이 현존 조선전기 나한상들 가운데 상당히 이른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다라니의 연대인 1467년을 제작시기로 보고 있다.

90) 이분희, 위의 논문, 2023, p.171 참조.

91) 흥국사 소조십육나한상에 대해서는 정은우, 「남양주 흥국사의 조선전기 목조16나한상」, 『東岳美術史學』 10(2009), pp. 137-160 참조. 이 나한상들은 목심 위에 흙을 바르고 채색하여 마감하는 기법으로 제작되어 처음 학계에 알려질 때는 목조상으로 여겨졌으나, 최종 마감 재료가 무엇인가에 따라 소

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58, 사진 24)과 같은 조선초 15세기 불상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明代 불상이나 불화에서 유행했던 양식이다.⁹²⁾ 특히, 흥국사 나한상에서 보이는 입이 유난히 작고 눈을 가늘게 위로 올려 치켜뜬 표현은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되는 조선초기 불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이해된다.⁹³⁾ 흥국사 십육나한상에서는 順治 7년(1650)에 중수되었다는 목서명이 확인되었는데, 십육나한의 原 봉안처인 고산 안심사의 중수 불사에 세조(1455~1468)의 지원이 있었다는 기록은 양식적인 측면에서의 분석과 함께 흥국사 십육나한의 조선초 15세기 造成說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⁹⁴⁾

흥국사 소조십육나한상과 유사한 조형감을 보이는 예천 용문사 소조십육나한상은 쇠골과 목뼈가 드러나는 세장한 체구와 광대뼈가 돌출한 작은 얼굴의 사실적인 표현에서 서로 상통한다(사진 25). 이 나한상들에서는 영암사 소조나한상(사진 7)과 같은 북송대 나한상이나 遼代 三彩나한상(사진 9)에서 발견되는 사실적인 형태미와 明代 불교조각(사진 26)의 세련되고 長身化된 조형감이 융합된 양식이라고 이해된다. 용문사 십육나한상은 아직 복장이 조사되지 않았으나, 용문사가 고려시대부터 胎室을 모신 사찰로서 왕실의 지원을 받았고 조선시대에 와서도 세조 3년(1457) 세조가 賜牌教旨를 내려 용문사의 잡역을 면제하여 주었으며⁹⁵⁾ 성종 9년(1478)에는 소헌왕비의 태실이 봉안되는 등 왕실과의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⁹⁶⁾ 또한 중종 10년(1515) 용문사 보광명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중수가 이루어졌으며⁹⁷⁾ 여기에 참여한 上畵員 李永文은 內需司의 匠人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조선전기 소조십육나한상 가운데 파편이 아닌 예로서 운복사(상원사 영산전), 남양주 흥국사, 예천 용문사 소재의 십육나한상들은 모두 흙을 재료로 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제작 시기에는 다소 先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크기가 작은 상원사 소조나한상들은 얼굴의 양감과 자연스러운 상호표현, 신체비례에서 여전히 고려의 조각통통이 고수되었던 조선초 15세기의 조각으로 생각되며,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58, 사진 24)에서 보이는 콧날이 길고 폭이 좁으며 입이 작은 가름한 얼굴과 신체의 細長化 등, 조선초기 불상에서 나타난 새로운 양식이 나한상에까지 반영된 단계를 보여주는 남양주 흥국사 십육나한상(사진 23)과 예천 용문사 십육나한상(사진 25)은 15세기말에서 16세기로 편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後者의 두 例 중에서는 세장화가 더 심하고 착의형식이 단순하며

조인지 목조인지 결정된다는 원칙 아래 소조나한상으로 판단되었다. 제작기법을 보여주는 나한상 내부의 사진은 정은우, 동 논문, p. 139 도판 3 참조.

92) 최성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에 대한 고찰」, 『美術資料』 100(2021), pp. 150-152 참조.

93) 조선 초 15세기에 알려진 명대 불상 양식은 16세기 이후가 되면 크게 유행하여 널리 확산된다. 최성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에 대한 고찰」, 『美術資料』 100(2021), pp. 150-152 참조.

94) 光緒 新묘년(1891)에 전라도 고산 安心寺 약사암에서 양주 흥국사로 옮겨 이듬해 왕실의 상공들의 후원으로 점안했다는 내용의 목서명이 발견되었다. 십육나한상 중수에 관한 목서는 제 10존자와 제석천상의 바닥에서 발견되었고 광서 1891년의 이안과 이듬해 점안되었다는 목서는 제 1, 제 2존자의 바닥면에서 발견되었다. 안심사사적비(1759)에 의하면 안심사 중수불사에는 세조(1455~1468)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소조나한상의 15세기 편년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정은우, 위의 논문, pp. 143-144 참조.

95) 용문사에 대해서는 李知命의 重修龍門寺記(1185)를 통해 연혁을 알 수 있으며 명종 원년(1171)에 용문산 좌비봉에 태자의 태실을 만들어 왕실의 지원을 받았고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축성수법회를 열었다. 용문사 감역교지(1457년)는 용문사의 잡역을 덜어주라는 내용의 세조 친필의 교지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며 1981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8043>; 정병삼, 「예천 명찰 용문사의 역사」, 『용문사의 성보』, 용문사정보유물관, 2006, p. 305.

96) 권상로, 『한국사찰전서』,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9476>

97) “正德九年十二月廿四日始 乙亥年四月初九日終畢矣 夫象佛重修因緣 最爲良緣也 然則此三尊象佛改造...” 최선일, 「불교조각 유물설명」, 『용문사의 성보』, pp.94-97; <https://heritage.go.kr/>

옷주름 표현이 간략하게 처리된 흥국사 십육나한상의 제작시기가 더 늦을 수 있을 듯하나 이것은 용문사 십육나한상에 입혀진 두꺼운 개재가 벗겨져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야 확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고려시대와 조선전기로 이어지는 나한신앙과 나한상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상원사 십육나한상의 양식을 추론해 보고 그 모습을 유추해 보자. 세조 12년(1466) 의숙공주 부부가 발원하여 조성된⁹⁸⁾ 상원사의 여러 존상들은 조선초 왕실 발원 佛事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內需所(內需司)에서 진행하여 당시 최고의 彫刻匠들에게 맡겨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조 9년(1463)에 내수소에서 주조한 4구의 불상이 藏義寺에 봉안되었던 것처럼⁹⁹⁾ 왕실발원의 불사는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인 내수소에서 왕실 내탕금으로 불사 비용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원사의 중수 역시 내수소에서 진행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¹⁰⁰⁾ 내수소는 뛰어난 화원을 선정하여 불사를 담당하게 하였을 것인데, 景泰 7년(1456) 복장발원문 가운데 발원자 명단이 나열된 발원문에 보이는 “화원 李中善, 보관조성 金今音知, 造佛 省道”라는 장인들¹⁰¹⁾이나 앞에서 용문사 목조아미타불상을 중수(개조)하였던 上畫員 이영문도 모두 내수소 소속의 장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1466년, 사진 27)과 목조제석천상(1466년 추정, 사진 28)¹⁰²⁾, 목조선재동자입상(1466년 추정, 사진 29)¹⁰³⁾의 뛰어난 조각은 참여한 조각장들의 높은 수준을 시사한다.



사진 26. 雙林寺 소조 불좌상, 明代, 山西省平遙縣



사진 27. 상원사 목조 문수동자상, 조선 1466년, 강원도 평창



사진 28. 상원도 목조제석천의좌상, 조선 1466년 추정, 강원도 평창



사진 29. 상원도 목조제석천의좌상, 조선 1466년 추정, 강원도 평창

98) 『2012 중요동산문화재 목불·철불·건칠불 기록화사업 결과보고서(강원·경기)』, pp.60-97.

99) 世祖實錄 31卷 9月 5日

100) 僧信眉構江原道 五臺山 上元寺 命承政院 馳書慶尙道觀察使 給正鐵一萬五十斤 中米五百石 又命濟用監 給絁布二百匹 正布二百匹 內需所給綿布三百匹 正布三百匹. 世祖實錄 35卷, 세조 11년(1465) 2월 20일.

101) 장충식, 「景泰7年 佛像腹藏品에 對하여」, 『考古美術』138139, pp.45-48.

102) 상원사 목조제석천상에 대해서는 유근자,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 목조제석천상의 연구」, 『선문화연구』 30, 2021, pp.251-304 참조.

103) 상원사 문수전 목조선재동자입상에 대해서는 심주완,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 목조선재동자입상 연구」, 『조선시대 왕실원찰 오대산 상원사 불교조각 학술세미나』, 대한불교조계종 오대산 상원사·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성보박물관, 2022, pp.101-130.



사진 30.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고려 14세기, 경기도 양평



사진 31.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좌상, 고려 14세기, 충남 청양



사진 32.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조선 1474년, 경북 경주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사진 27)은 뺨에 살이 통통하게 오른 양감이 풍부한 둥근 얼굴에 표현된 인간적인 相好와 균형감 있는 신체비례 및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설법인을 결한 양손과 발의 조각에서 나타나는 사실성, 복잡하고 정지한 옷주름 등에서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 30)이나 청양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 31)과 같은 고려 후기 14세기 조각의 요소가 나타난다. 이와 유사한 양식적 특징은 상원사 문수전 목조제석천상(1466년 추정, 사진 28)과 상원사 문수전 목조선재동자입상(1466년 추정, 사진 29)에서도 발견되므로 존명에 따른 도상적 차이로 인해 형식은 다르지만 양식적으로는 동일 범주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⁵⁾ 그런데 이 상원사 봉안 존상들보다 8년 정도 이르게 왕실발원으로 조성된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58)은 다소 相異한 조형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상원사 존상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양감이 줄었고 신체에 비해 두부가 작은 장신화된 비례를 보여주며 여성적인 가름한 얼굴에 가늘고 긴 콧날과 작은 입의 표현이 특징적이다.

앞에서 살펴본 상원사 존상들과 흑석사 아미타여래좌상의 비교를 통해서 비슷한 시기의 왕실발원 불사라고 해도 상당한 조각가에 따라 양식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내수소 진행의 불사에 참여했던 조각가의 계통이 다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점은 세조 12년(1466) 왕명으로 왕실종친과 지방관료 및 양민들이 함께 발원하여 성종 5년(1474)에 완성된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原 봉안처 還城寺)에서도 확인된다. 왕룡사원 아미타여래좌상(사진 32)은 大衣 깃과 왼쪽 어깨에 늘어진 옷자락의 주름 및 착의형식 등, 圖像 면에서는 이 상보다 제작 시기가 이른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58)과 유사하면서도 두부가 작고 허리가 긴 흑석사 불상에 비해서 신체의 비례감이나 양감이 풍부한 얼굴의 상호표현에서 고려 후기의 조각 전통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이 왕룡사원 아미타여래좌상의 조각을 담당한 良手 大禪師 性了와 副良手 禪師 惠正이 조각승이었으므로 화원들보다는 전통 양식을 고수했던 보수적인 경향의 조각가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조선초 왕실발원 불사 가운데 天順 원년(1457) 永膺大君(세종의 8子)의 후원으로 守眉大師가 중창하였던 영암 도갑사는 1977년 소실되었는데, 현재 유리건판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존상들(사진 33)은 당시 조성된 조선초 15세기 후반의 조각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⁰⁶⁾ 도갑사 대웅전의 보살상들은 가늘고 긴

105) 유근자,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 목조제석천상의 연구」, 『선문화연구』 30, 2021. 오은주, 「朝鮮 15世紀 王室發願 佛像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106) 1464년에도 도갑사 불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도갑사 불사는 1457년에 시작되어 15세기 후



사진 33. 도갑사 대웅전 보살입상(유리건판 사진), 조선 15세기, 전남 영암



사진 34. 조계사 대웅전 목조여래좌상, 조선 15세기, 원 봉안처 영암 도갑사



사진 35. 용문사 응진전 소조미륵보살입상, 조선전기, 경북 예천



사진 36. 용문사 응진전 소조제석천의좌상, 조선전기, 경북 예천

과 폭이 좁은 긴 코, 작은 입, 뺨에 약간의 살이 있는 여성적인 상호, 작은 두부에 비해 허리가 긴 신체비례 등에서 이 상들보다 1년 늦게 조성된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58)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소실된 도갑사 존상들을 제작한 조각가들이 흑석사 아미타여래좌상을 제작했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아울러 도갑사에서 1938년에 조계사로 옮겨온 목조여래좌상(사진 34) 또한 조선 15세기 후반경으로 편년되고 있는데,¹⁰⁷⁾ 이목구비의 표현이나 작은 두부의 장신화된 신체표현에서 도갑사 보살상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제한적인 자료이나마 여기서 살펴본 조선초기 왕실발원의 불교조각은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사진 24)이나 도갑사 대웅전 존상들(사진 33)에서 보이는 위로 살짝 올라간 가늘고 긴 눈, 작은 입, 폭이 좁고 콧날이 높은 여성적인 상호, 작은 두부에 비해 허리가 긴 장신화된 비례감을 보이는 그룹과 오대산 상원사 존상들처럼 양감이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조형감과 비례감 및 옷주름이나 손과 발 등 세부 조각에서 사실성이 뛰어난 그룹의 두 계통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요컨대 상원사의 존상들은 소실된 도갑사 존상들이나 흑석사 아미타여래좌상과는 다른 조각적 특징을 보이고 있어 이 상들과 함께 조성된 상원사 십육나한상 역시 동일한 양식 범주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화 2년(1466)에 조성된 상원사 십육나한상은 단독 존상이 아니라 십육나한상이므로 다양한 형상이 표현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수동자상이나 제석천상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감이 풍부한 얼굴과 사실적인 이목구비와 섬세하고 정직한 옷주름 표현과 세부 조각이 공통적으로 구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남양주 흥국사 소조십육나한상 가운데 여러 구(사진 23)에서 보이는 가늘게 눈꼬리가 올라간 눈과 길고 오뚝한 콧날, 작은 입과 뺨이 풍만한 단아한 얼굴, 허리가 긴 장신형의 신체표현 등에서는 조선초 흑석사 아미타여래좌상 계통의 조각적 특징이 발견된다. 또한 용문사 십육나한상은 조성기나 복장자료가 조사되지 않아 정확한 제작시기가 밝혀지지 않았고 後代 보수가 이루어지면서 원래의 모습을

반 내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대웅전에 보셔졌던 3구의 불상과 6구의 보살입상 가운데 한 구를 제외하고는 이 시기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조실록』 세조 10년 4월 13일; 유대호, 「조선전기 도갑사 불상군의 특징과 제작 배경: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사진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40, 2021, pp.163-185; <https://www.museum.go.kr/dryplate/main.do> 참조.

107) 유대호, 위의 논문, pp.177-178; 유근자, 「조계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聖寶」, 『조계사 창건역사와 유물』, 불교중앙박물관, 2013, pp.49-50.

않기도 했을 것이나 석가삼존상의 좌우협시보살상(사진 35)이나 제석천상(사진 36)에서 보이는 가늘고 긴 눈과 작은 입의 相好 표현이 십육나한상의 여러 존상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흥국사 십육나한상과 마찬가지로 용문사 십육나한상 역시 흑석사 아미타여래좌상 계열의 조선초기 불교조각들과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전기 15세기 후반~16세기에 조성된 존상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양식적인 면에서 상원사 십육나한상이 흥국사 십육나한상의 형상과 유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존 작품 가운데 상원사 십육나한상을 유추할 수 있는 예를 찾을 수는 없을까? 이에 관련하여 현재 상원사 영산전에 봉안된 운복사 소조십육나한상 10구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운복사 십육나한상은 비록 작은 규모의 상이나 얼굴에 양감이 풍부하고 이목구비의 조각이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허리가 길게 장신화된 신체비례가 나타나지 않는다(사진 22). 또한 착의표현이 과장되거나 번잡하지 않고 부드럽고 사실적인 모델링이 두드러지는 조선 초기 나한상의 예를 보여주어 현재 전하지 않는 상원사 십육나한상의 형상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크기가 작은 중소형의 운복사 십육나한상은 왕실발원의 當代 최고 수준의 상원사 십육나한상이 조성된 직후에 이 상들을 範本으로 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으로서 상원사 십육나한상을 유추할 수 있는 존상으로는 현재 상원사 영산전에 봉안되어 있는 운복사 십육나한상보다 더 적절한 예는 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와 조선전기의 나한상 조각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상원사 십육나한상에 대한 양식적 유추를 진행해 보았다. 이 시기에는 나한신앙이 성행하여 많은 나한상들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전하지만 현존하는 나한상은 수가 적고 대부분이 단독상으로 전하고 있어 십육나한상이나 오백나한상의 전체적인 이해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세한 자료를 통해서 볼 때, 고려시대의 나한상들은 통일신라시대의 제자상과 승려 초상조각의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중국 오대·송 나한상의 도상과 양식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 나한상은 五代 석조나한상들의 단순하고 생략적인 표현과 함께 宋代 나한상들의 장식적인 표현과 세밀한 옷주름, 세속적으로 느껴질 만큼 사실적인 외모가 강조된 형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나, 이것을 적절하게 변용시켜, 나한의 정신성과 경건하고 자비한 모습, 심오한 내면세계의 표현이 강조된 고려 특유의 나한상 유형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고려사회에서 선호한 승려상이나 제자상처럼 경건하고 온화하며 부드럽고 자비로운 이미지의 나한상들이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장보살이나 승가대사의 도상을 통해 친숙해진 이국적인 被帽 나한상이 유행하였던 점도 고려와 조선초기 나한상에서 발견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재료에 따라 기법이나 조각 양식이 다른 특징을 보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동이나 소조 나한상에서는 비교적 사실적이고 섬세한 표현이 나타났던 반면에 석조상은 단순하고 추상화된 표현이 보인다. 조선전기 나한상에서는 이와 같은 양식적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이해된다.

의숙공주 내외의 발원으로 1466년에 조성된 상원사 십육나한상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지만, 상원사에 현존하는 목조문수동자상과 목조제석천상, 목조선재동자상의 양식에서 고려후기 불교조각의 전통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 상들과 함께 조성되었던 상원사 십육나한상은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58)을 비롯한 남양주 흥국사 소조십육나한상이나 예천 용문사 소조십육나한상과 동일한 양식 계열로 분류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원사 존상들의 양식적 특징에 부합하는 십육나한상으로는 현재 상원사 영산전에 봉안되어 있는 예천 운복사 십육나한상이 가장 근접하는 예로 보이며 이 존

상들은 상원사 십육나한상과 같은 계열에 속하는 양식적 특징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圖經』

『東國李相國集』

『法苑珠林』

『三國遺事』

『朝鮮王朝實錄』

「參天台五臺山記」,

廣東省博物館, 『廣東省博物館藏品選』, 文物出版社, 1999.

『구도와 깨달음의 성자 나한』, 국립춘천박물관, 2003.

大村西崖, 《吳郡奇蹟塑壁殘影》, 1926.

道端良秀, 『羅漢信仰史』, 大同出版社, 1983.

小林太市郎, 『禪月大師貫休の生涯と藝術』, 淡交社, 1974.

『醴泉 南本里遺蹟 I』, 영남문화재연구원, 2012.

『醴泉 南本里遺蹟 II』, 영남문화재연구원, 2016.

유근자, 『조선시대 왕실발원 불상의 연구』, 불광출판사, 2022.

井手誠之輔, 『日本の宋元佛畫』(日本の美術 No.418), 至文堂, 2001.

『月精寺聖寶博物館圖錄』, 월정사, 2002.

『日本の美術』 No.234 羅漢圖, 東京: 至文堂, 1985.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西湖石窟』, 杭州: 浙江省人民出版社, 1986.

『창령사 터 오백나한 :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국립춘천박물관, 2018.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허흥식,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86.

黃壽永, 『增補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M.W. de Visser, The Arhats in China and Japan, Berlin: Osterheld & Co., 1923.

Chinese, Korean and Japanese Sculpture, The Avery Brundage Collection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Kodansha International Ltd., 1974.

강삼혜, 「고려시대 영월 창령사터 오백나한상 연구」, 『동원학술논문집』 21, 2020.

곽동석, 「東文選과 高麗時代の 美術: 佛教彫刻」, 『講座美術史』 1, 1988.

김동현, 「고려시대 나한상 도상 연구-두건 도상을 중심으로-」, 『동양미술사학』 16, 2023.

문명대, 「仁陽寺 金堂治成碑像考」, 『미술사학연구』 108, 1970.

문명대, 「海印寺 木造希朗祖師眞影(肖像彫刻) 像의 考察」, 『미술사학연구』 138·139, 1978.

신광희, 「한국 나한도의 독자성」, 『미술사연구』 25, 2011.

신광희, 「나한의 조형: 한국 나한상의 제작 추이와 특성」, 『淨土學研究』 26, 2016.

신광희, 「거조암 오백성중청문을 통해 본 한국의 오백나한 의례」, 『한국선학』 51, 2018.

신광희, 「고려·조선전기 나한신앙과 나한상의 특성에 대한 일고찰」, 『불교학보』 101, 2023.

심주완,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 목선재동자입상 연구」, 『조선시대 왕실원찰 오대산 상원사 불교조각 학술세미나』, 대한불교조계종 오대산 상원사·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성보박물관, 2022.

유대호, 「조선전기 도갑사 불상군의 특징과 제작 배경: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사진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40, 2021.

유근자,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 목조제석천상의 연구」, 『선문화연구』 30, 2021.

유근자, 「오대산 상원사 영산전 존상의 복장 기록 연구」, 『국학연구』 45, 2021.

유근자, 「조계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聖寶」, 『조계사 창건역사와 유물』, 불교중앙박물관, 2013.

이분희, 「양주 회암사지 출토 여말선초(麗末鮮初)소조상 연구」, 『淨土學研究』 36, 2021.

이분희, 「오대산 상원사 영산전 존상 연구」, 『조선시대 왕실원찰 오대산 상원사 불교조각 학술세미나』, 대한불교조계종 오대산 상원사·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성보박물관, 2022.

이분희,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의 양식적 특징」, 『오대산 상원사 진여원과 조선시대 불교조각 학술세미나』,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상원사·월정사성보박물관, 2023.

이수창(마성), 「나한신앙의 성립과 전개과정」, 『불교문화연구』 6, 2005.

정은우, 「남양주 흥국사의 조선전기 목조16나한상」, 『東岳美術史學』 10, 2009.

정제규, 「淸州 思惱寺址와 高麗後期 羅漢信仰의 展開」, 『溫知論叢』 24, 2010.

- 최선주, 「창령사 터 오백나한상의 도상과 미술사적 고찰」, 『창령사 터 오백나한』, 국립춘천박물관, 2018.
- 최성은, 「杭州 煙霞洞石窟 十八羅漢像에 대한 研究」, 『美術史學研究』 190·191, 1991.
- 최성은, 「우리나라의 나한조각」, 『구도와 깨달음의 성자 나한』 국립춘천박물관, 2003.
- 최성은, 「『삼국유사를 통해 본 분황사(芬皇寺)의 중대신라 불교미술』, 『문화재』 47-4, 2014.
- 최응천, 「思惱寺 遺物の 性格과 意義」, 『고려공예전』, 국립청주박물관, 1999.
- 韓剛智, 「五臺山 上院寺 木造文殊童子坐像 研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許興植, 「高麗初 佛教界의 動向」, 『문학과 지성』 29, 1977.
- 宮崎法子, 「傳裔然將來十六羅漢像」, 『鈴木敬先生還曆記念中國繪畫史論叢』, 吉川弘文館, 1981.
- 邯鄲市文物保管所·峰峰礦區文物保管所, 「河北邯鄲鼓山常樂寺遺址清理簡報」, Cultural Relics 10, 1982.

【Abstract】

Image of the Sixteen Arhat of Sangwonsa through the Sculptural Forms of the Early Joseon Era

Songeun Choe, Duksung Women's University

At Sangwonsa Temple on Mount Odae, Princess Yisuk, the daughter of King Sejo of Joseon Dynasty, and her husband, dedicated three Buddha statues representing Sakyamuni, Medicine Buddha, and Amitabha images, along with five Bodhisattvas including Manjusri, Samantabhadra, Maitreya, Avalokiteshvara, and Ksitigarbha images, to wish for the royal family's longevity and begging a good son. They also have made offerings of Sixteen Arhat statues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known to resonate with people's prayers and wishes, providing a sacred response. Although there is no specific records on the appearance of the sixteen Arhat images created at that time, it is presumed that they were crafted by the top sculptors of the era, likely those affiliated with the internal bureau responsible for Buddhist affairs.

While the exact form of Joseon the sixteen Arhat statues created popularly during that period remains unknown,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y shared a similar style with the extant wooden sculptures in Sangwonsa, such as the wooden Child Manjusri statue, wooden Indra statue and wooden Sudhana statue, which are thought to have been produced by the leading sculptors of the early Joseon royal court. The surviving Arhat statues from the Joseon era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wo groups: those with a simple and minimalistic style, similar to the stone Arhat statues(1516) at Silsangsa in Namwon or those unearthed from Changnyeongsa Temple site at Yeongwol, and those with a more intricate and realistic representation, exemplified by the small clay Arhat statues moved from Unboksa Temple in Yecheon to Sangwonsa in 1886 (ten pieces still extant), the clay sixteen Arhat statues at Yongmoonsa Temple in Yecheon, and the clay sixteen Arhat statues of Heungguksa Temple in Namyangju. The latter lineage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that adheres to the tradition of late Goryeo Buddhist sculpture, similar to the extant figures of Sangwonsa, and another group that reflects the new Ming Dynasty style, as seen in the clay sixteen Arhat statues of Heungguksa and in the wooden statue of Amitabha Buddha(1458) of Heuksuksa at Youngju.

By examining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existing wooden sculptures, such as the the wooden Child Manjusri statue at Sangwonsa, it can be inferred that the sixteen Arhat statues enshrined in Sangwonsa in 1466 may not have exhibited a similar sculptural sensibility as those at Heungguksa or Yongmunsa Temples. Instead, the extant wooden sculptures at Yecheon Unboksa, particularly the small sixteen Arhat statues, present a suitable example for deducing the appearance of the Sangwonsa sixteen Arhat statues

due to their adherence to traditional Goryeo-period Buddhist sculpture practices. Moreover, the surviving wooden sculptures at Sangwonsa, including the Indra and Sudhana statue, showcase a style that aligns with the later Goryeo and early Joseon Buddhist sculptural traditions.

[key word] Sixteen Arhat Statues, Arhat Faith, Sangwonsa, Yongmunsa, Heungguksa